

“청년농업인 땅 걱정, 농지은행이 해결합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fn 이사람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청년농업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농지를 구하는 일만큼은 공사 농지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청년들의 제1 걱정은 부동산이다. 24일 파이낸셜뉴스를 만난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사진)은 귀농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농사 지을 땅’을 제공하는 해결사다.

시중은행이 우리 사회에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농지은행’ 역시 생애주기별로 농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지은행은 일반적 농경지를 비롯해 스마트팜 등 ‘농사 지을 땅’ 전반의 매입·매도·임차·임대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서 일해온 33년간 하 처장은 최일선 현장인 지사와 지역 본부를 두루 거쳤다. 농지은행처장을 맡기 전에는 경북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지역 내 농가를 가까이서 지켜봐 온 셈이다.

지근거리에서 농촌을 살펴온 만큼 늘어나는 귀농인구에도 현실적인 지원과 조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 처장은 “귀농을 한다는 것이 마냥 핑크빛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농업은 단시간에 높은 효율을 내기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주민과 유대하며 그들에게 깊숙하게 녹아 있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농업인의 꿈을 농지은행이 적극 응원하고 지원



귀농청년에 농사지을 땅 찾아줘 스마트팜 농지·시설 임차 늘리고 고령농업인 안정적 노후도 도와 활기와 여유 공존하는 농촌으로

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청년농 육성과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모두 농지은행이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다. 농지은행이 역점을 두고 있는 목표도 관심·진입·성장·위기·은퇴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다.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농과 기존 고령농업인의 수요가 농촌에 존재하고 있어서다.

하 처장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도 원하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록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지원하고, 시설 영농을 꿈꾸는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매입한 뒤 최대 30년간 매도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에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시설영농에 관심이 높다면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필요한 농지와 시설 임차도 가능하다. 지난 1월부터는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농에 맞춰 임대수탁사업 등에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시범도입했다.

더 이상 농업활동이 어려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것도 농지은행의 역할이다. 하 처장은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농지은행이 매수한 농지는 우선적으로 청년농 지원을 위해 배정한다. 공사가 소유한 배수불량 논 등 훼손된 농지를 복구해 만든 우량농지도 청년농이 우선적으로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하 처장은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선순환식 세대교체 기반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라며 “청년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주도하는 활기찬 농촌, 오랜 시간 농업을 지켜온 고령농업인의 노후가 보장되는 여유로운 농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노태우 정부서 비서실장 등 거쳐 ‘6·29선언’ 작성·북방정책 관여

노태우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전 총리(사진)가 8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2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노 전 총리는 23일 오후 10시10분경 서울성모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노 전 총리는 1년 전 혈액암 판정을 받고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다. 미국 암스트롱주립대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서울대 재직 당시에는 보수 성향 정치사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대통령 직선제와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복권을 골자로 하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작성에도 참여했다.

1988년 노태우 청와대 외교담당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 등 이른바 ‘북방



정책’ 추진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쳐 1991년 22대 국무총리직을 맡았다. 취임 후 명지대 강경대 학생 사망사

건이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며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에 사의를 표명했다.

총리직 이후에도 민주자유당에서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무위원과 고문으로 활동했다. 명지대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임수빈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한 바 있다. 여러 차례 ‘각하’라고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노 전 총리의 유족으로는 부인 지연씨(88), 딸 모라씨(62), 아들 진씨(57)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SK네트웍스, 美 실리콘밸리에 AI연구거점 구축

인공지능(AI) 접목 사업모델 혁신을 통해 AI 컴퍼니로 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실리콘밸리에 AI 연구거점을 구축했다.

SK네트웍스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로즈우드 샌드힐 호텔에서 AI 기술 개발 조직인 ‘피닉스 랩’ 출범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최성한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항후 피닉스 랩을 통해 미국에서 강력한 입지를 갖추는 동시에 여러 기업들의 AI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jun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최성한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가운데)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즈우드 샌드힐 호텔에서 AI기술 개발 조직인 ‘피닉스 랩’ 출범 기념식에서 구성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제공

인천국제공항 2여객터미널에 실버카페 ‘활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에서 실버카페 ‘하늘마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실버카페 하늘마루는 모두 14명의 고령층 근로자가 운영한다. 제2여객터미널 일반구역 5층 인천공항 홍보전망대에서 여객에게 다양한 커피와 음료 메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이 실버카페를 오픈한 것은 지난 2018년 제1여객터미널 지하 교통센터에 위치한 실버카페 1호점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에서 진행된 실버카페 ‘하늘마루’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KAI,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 머리 맞댄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3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체’를 발족하고 사내외 협력업체와 발대식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원정기업과 협력업체 간 산업재해 예방 및 상호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안전실실장과 연향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사내외 39개 협력사 대표 및 임원 등명이 참석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안전실실장(오른쪽)과 김상술 포에버항공 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상생협력체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I 제공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ID본부 점검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3일 여권과 주민등록증 등 국가신분증 제조사업장인 대전 유성의 ID본부에서 ‘최고경영자(CEO) 현장 특별한 전점검’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사진)은 “임직원들의 안전의식과 생산현장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공사의 무재해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신경철 교수 ‘코스맥스 신진연구상’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생명공학부 신경철 교수(사진)가 지난 18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된 2024 한국생물공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시상식에서 코스맥스 신진연구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1, 장애인복지시설에 1억500만원 기부 E1은 24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E1 본사에서 희망충전캠페인 기부금 1억50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진만 E1 대외협력실장(왼쪽)이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1 제공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시우 포스코 사장, 고동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환경연구소장(왼쪽부터)이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블루카본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해수부 등, 바다숲 조성 ‘맞손’

포스코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블루카본 및 수산자원 증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에 흡수돼 격리·저장되는 탄소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수산자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건

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 △해조류 등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포스코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약 이후 다음달부터 2027년까지 국비 10억원, 포스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 구평1리, 모포리 해역에 2.99㎢ 규모 바다숲을 조성한다. 이후 광양권역까지 협력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부고

▲이근열씨 별세·이동훈 승훈(육군 대령) 태훈씨(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부친상=23일 안양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31)384-4634

▲윤교중씨(전 경찰공무원) 별세·김용정씨 상부·윤석윤(전 커민스코리아 대표) 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석훈(청주 윤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석종씨(재미·사업) 부친상=24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31)787-1510

▲이동철씨 별세·이운기씨(현대해상 다이렉트영업본부장) 부친상=23일 삼육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9시30분. (02)2215-4444 ▲이건우씨(공주 이건우의원 원장) 별세·김순기씨 상부·이석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연하(공주 정보교 교장) 금하씨(KOTRA 기획조정실장) 부친상·공윤선(MBC 뉴스룸 외교안보팀 차장) 공윤재씨 외조부상=23일 공주의료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41)962-1444